

# '항일의 땅' 소안도, 해상공원의 보물섬

### 국립공원공단,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 탐방정보 공개 독립운동가 19명 포함 애국지사 57명 배출한 섬 해수욕장·미라팔경 등 자연경관도 뛰어난 관광 명소

완도군 소안도는 독립운동가 19명을 포함, 57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성지다.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이듬마져 예사롭지 않다.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다. 소안도가 '항일의 땅'으로 불리니까 지는 끊임 없이 일제에 저항한 민초들의 투쟁이 있었다.

110년 전인 1909년 주민 이준화 등 5명은 소안도 인근 당사도에 등대를 승격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일본인 간수를 처단했다. 당시도 등대는 일본 상선의 남해항로를 위한 시설이었다.

완도 일대 항일운동을 이끈 송내호(1895-1928) 선생이 설립한 '중화학원'을 모태로 소안도 주민들이 세운 소안학교는 일장기를 달지 않는 등 항거를 지속했고 1927년 강제 폐교 당했다.

당시 섬 주민 6000명 중 800명이 '불령선인'(不逞鮮人, 불량한 조선인)이란 낙인이 찍힌 채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소안도에 대한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16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남쪽으로 약 17.8km 해상에 자리한 소안도는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노랑무궁화로 불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근이 서식하며, 미라리와 맹선리 일대의 상록수 숲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소안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태극기다. 이 섬은 1년 내내 섬 전체에 태극기를 걸어놓아 태극기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1500여개의 태극기가 항상 바람에 펄럭인다. 태극기는 아무 때나 걸 수 없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 연중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안도 항일 운동의 역사는 지난 2003년 사립소안학교 자리에 세워진 항일 독립 운동 기념탑에서 느낄 수 있다. 복원한 학교 건물은 주민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념관에는 당시 신문 기사, 소안도 출신 독립운동가 얼굴 부조 등을 전시하고 있다.

소안도는 항일 역사 이외에도 볼거리와



소안도의 사립소안학교에 세워진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즐길거리도 풍부하다. 과목해수욕장·소강나루해수욕장·진산리해수욕장·부상리해수욕장이 있고 미라리 해안에서 보이는 빼어난 자연경관인 '미라팔경', 사지도, 당사도 등대, 제주목사 기념비, 비자리 조개무지 등 관광자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소안도는 완도 화흥포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소안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항일 운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소"라고 소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소안항일 운동기념사업회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00)로 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선박 감시 시스템·드론 활용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이 본격적인 날들이철을 맞아 선박 감시(모니터링) 시스템·무인기(드론)를 동원, 해상국립공원내 취사·야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해도(海圖)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이 출입금지된 무인도에 접근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벌하고 있다.

지난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 단속한 결과 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

부터 드론을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다도해 등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방송장치를 탑재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도 장착해 조난자 수색, 무단 방목된 염소 개체수 파악, 생태계 모니터링, 산불감시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2014-2018)간 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 증가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 8월 19~27일 작품 접수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4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분야와 학술분야로 나뉘어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일반 분야는 성인부(대학생 포함), 고등학생부, 중학생부, 초등학생부 4개 부문이고, 학술분야(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그림) 분야는 성인부만 접수를 받는다.

응모작은 우리 자생생물을 묘사한 4절 크기(394mm×545mm)의 원화와 함께 참가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자생생물 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species.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9월 중순에 발표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 김양식장 쓰레기 제주도 해상에 큰 피해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 전남지역 김양식장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해양쓰레기가 발견돼 수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추자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김양식시설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자면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추자도 수협 소속 선박 2척을 동원해 인양 작업에 나서 이를 뒤인 13일 오후 추자도 수협 위판장으로 해양쓰레기를 인양했다. 이 과정에서 인양 선박 스크루에 양식시설이 걸려 하루 정도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인양 후 해양쓰레기를 확인한 결과 김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와 막대기·그물·밧줄 등 100t에 육박한 쓰레기가 영겨있었다.

추자면사무소 관계자는 "김 썩은 악취 때문에 분리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전라남도에도 해당 양식시설의 출체를 막는 공문을 발송, 양식업체가 확인되면 수거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수협위판장 앞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군인들이 전남 해안에서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100t)를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산강환경청, 상수원상류 토지관리 소통창구 마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0일 영산강청 3층 영산강실에서 '상수원상류 친환경 토지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자문단은 토지매수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들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영산강청, 자치단체,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등 수질·환경·생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정례회의는 매년 반기마다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매수토지 관리사업 추진계획, 토지매수 지침 개정 계획, 광역상수원 홍수조절용지 친환경 관리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임수영(영산강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위원장은 "친환경 토지관리를 위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문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충실히 검토해 법령, 지침, 현장업무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단의 제2차 정례회의는 올해 8월에 개최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